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18> 화두 참구에 조심해야 할 열 가지 병

참선하는 문중에서 믿음과 원력을 바탕으로 화두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은 절대 성취할 수 없다. 알고 보면 온갖 의심이 오지 하나의 의심일 따름이다. 화두 하나만 제대로 타파하면 온갖 의심이 한꺼번에 해결된다.

그러나 화두를 들 때 화두 하나에만 마음을 모아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주를 조금이라도 부리려고 해서 안 된다. 다만 오고 가며 앓고 늙는 모든 삶 속에서 화두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할 뿐이다.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제멋대로 이리저리 분별해서 안 된다. 화두를 들고 끊임없이 공부를 쟁겨가다. 이치로도 알 수 없고 뜻으로도 알 수 없으며 아무 재미도 없다는 것을 알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답답해지

는 경계가 올 때, 바로 그 자리가 사람의 목숨을 내던질 곳이다. 화두 공부야 끝날 수 있는 자리이다. <선가귀감> 16장에서는 화두를 쟁길 때 생기가 쉬운 병을 지적한다.

話頭 不得舉處承當 不得思量 卜度 又不得迷待悟 就不可思量 慮量 心無所之 如老鼠入牛角 便見倒斷也 又尋常 計較安排底 是識情 隨生死遷流底 是識情怕怖惺惺底 是識情 今人 不知是病 只在裡許 頭出頭沒

화두를 드는 자리에서 무엇을 알아차리려고 해서도 안 되고, 뜻으로 헤아려 짐작해서도 안 되며,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떤 깨달음을 기다려서도 안 된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곳에서 생각하면, 마음 갈 곳 없는 것이 마치 늙은 쥐가 구부러진 쇠뿔 속에 들어가다 더 나아갈 곳이 없어 낭패를 당하는 것과 같다. 또 늘 이리저리 따

지는 일은 증생의 알음알이로 삶과 죽음에 끌려 다니는 것도 증생의 알음알이며 두렵고 무서워 갈팡질팡 하는 일들도 증생의 알음알이일 따름인데, 오즈음 사람들이 이 병을 잘 알지 못하므로 다만 그 속에서 부질없이 나고 죽고 할 뿐이다.

이에 대해 서산 스님은 간화선을 참구할 때 조심해야 할 열 가지 병폐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오로지 화두만 참구하라고 말한다.

“화두 참구에 조심해야 할 열 가지 병이

## 시비 분별은 모든 장애의 근원 심안 열고 화두 들면 병 사라져

있다. 첫째는 뜻으로 헤아려서 짐작하려는 병이다. 두번째는 일상생활의 경계에 집착, 이것이 진리라고 고집을 내세우는 병이다. 셋째는 말의 논리만 가지고 살 길을 찾는 병이다. 네번째는 글에서 어떤 내용을 끌어다 깨달음을 증명하려는 병이다. 다섯번째는 화두를 드는 자리에서 무엇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병이다.

여섯번째는 화두를 쟁기지 않고 아무 생각없이 그럴싸하게 앉아 있기만 하는 병이다. 일곱번째는 유(有)나 무(無)의 알음알이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병이다. 여덟번째는 정말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써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병이다. 아홉번째는 어떤 도리로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병이다. 열번째는 어리석게 깨달음을 기다리는 병이다. 이 열가지 병을 떠난 사람은 화두를 들 때 오로지 정신을 차려

다만 ‘이것이 뭐꼬?’ 를 의심할 뿐이다.”

<선요>에서 본선각의 열 가지 병폐  
그래도 공부에 진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두 참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생각해보아야 할 점을 고봉 스님은 <선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전생에 뒤아놓은 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둘째,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셋째, 하루 공부하고 열흘 놓았던 것은 아닌가. 넷째, 근기가 시원 참아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가. 다섯째, 번뇌 망상에 빠져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섯째, 고평한 경계에 걸려 딱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일곱째, 솔로웠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덟째, 시집인연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아홉째, 화두를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열째, ‘알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가귀감>이든 <선요>이든 선각에게 일어나는 모든 장애의 근원은 시비 분별에 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나’와 ‘경계’를 시비 분별하는 데에 있으니 알고 보면 증생의 생사도 시비 분별하는 마음에서 오는 자질구레한 것일 뿐이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헛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생각으로 화두를 타파해야 한다. 화두만 잘 쟁긴다면 위에서 말한 모든 병폐들을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두를 들 때 화두에 마음이 집중되어 심안(心眼)이 열려야 한다. 경을 볼 때에는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경의 근본 뜻을 볼 수 있는 경안(經眼)이 열려야 한다.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에 몰두해 일 자체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고 가며 앓고 늙는 모든 삶에 마음이 집중돼 하나가 될 때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수행으로서, 살아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다.

■원승 스님(송광사 인월암)

### 행복동 사람들

용서  
배종훈 (bjh4372@hanmail.net)

그럼, 내가 갔다. 20년 후에 내 아들 이 찾아가 복수할 것이다.

그렇게 두 가문은 영원한 원수가 되었다. 너는 그것을 잊어선 안된다.

알았지?

아버지의 원수... 기다리고 있겠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 원수에게 지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네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지만 복수를 해도 많이 편치 않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걱정이세요?

가문의 원수입니다.

이봐, 할아버지 유치원 다녀왔어요. 엄마는요?

오, 그래? 복수하셨나?

아니, 그래. 유치원에선 말 배웠잖아? 할아버지께 보여드려.

헛헛하게 그래.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요. 용서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지 못합니다. 원한을 버리면 사라집니다.

###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 사시마지(巳時摩訶)

절에서 흑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스님이 오른 손에 제기를 정성스럽게 들고 법당으로 가는 모습을요. 흔히들 이를 ‘사시마지(巳時摩訶)’라고 하지요.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세 끼를 먹지만, 부처님은 평소 하루에 딱 한 번 오전에만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훗날 제자들도 그 뜻을 받들

어 이 때에 맞춰 공양물을 올리게 됐지요. 그럼 왜 사시에 부처님께 쌀밥을 불기(佛供)에 담아 올리는 것을 마지막 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께 올리는 밥’ ‘마지 밥’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손으로 만들어 올린다’ 또는 ‘손으로 빈다’ 해 마지막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는 글자 그대로 ‘맛있는 진지를 올리다’란 의미입니다. 즉 ‘정성스럽게 만든 공양을 올리니 제 뜻을 감응해 주십시오’란 뜻이지요. 아마도 오후불식(午後不食)을 했던 부처님의 수행 정신을 받들어 제일 먼저 공양을 올린다는 것이 사시마지의 참 뜻이겠지요.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93)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2부 39장 제 5장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 서설

<금강경> 하면 언뜻칭 떠오르는 사구제가 있다. ‘법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則見如來)’가 그것이다. 앞의 4장의 이야기를 총괄 요약하는 이 한 마디는 불교 초차 상(相)임을 정면으로 일침으로 찌러준다. 그 점 앞엔 명연(顯顯), 눈 앞이 짙다.

원문 언해, 번역  
(원문)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身相, 見如來不也. 世尊. 不可以身相, 得見如來. 何以故. 如來所說身相, 即非身相. 佛告須菩提.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則見如來.  
(언해)  
“수보리아! 뜻에 어찌뇨? 어부 신상(身相)으로 여래(如來)를 보라 못 보라?” “아닙니다. 세존하! 신상으로 여래를 시러(示)하되 볼지 못하리니. 어찌어뇨? 여래 일르신 신상이 곧 신상이 아니니이다.” 부처께서 수보리에 이르시되, “무릇 있는 상(相)이 다 이 허망(虛妄)이니, 만약 제상(諸相)의 상(相) 아닌 줄을 보면 곧 여래(如來)를 보리라.”  
(번역)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능히 육신의 모습으로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없

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으로 여래를 뵈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래가 (붓다의 증거로) 말씀하신 육신의 표징은 객관적 사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붓다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기를, “(그렇다!) 무릇 모든 표징은 다 실재하지 않는 환상이니, 만약, 일체의 표징이 순전히 의식의 구성물임을 깨달으면, 그때 여래를 보게 되리라.”

진리의 환상도 버려라  
5장의 제목은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이다. “객관적 사태(理)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다. 4장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들려준 바 있다. 붓다는 1) “보살은 모든 증생을 니르바나로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사람”이다. 그리고 2) 그 보살의 삶은 무한히 주고 베푸는 것인데, 거기 아무런 자의식이냐 보답의 기대가 없다.  
지금 여기서는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준다. 보살은 그런 자아의 환상도 없어야겠지 만, 3) 더욱 “진리의 환상도 없어야한다.” <금강경>은 <반야심경>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경배하는 진리의 화신, 여래는 육신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특별한 위대한 인격의 표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불교가 도그마(dogma)가 아님을, 통념의 종교성과 같이 취급되기를 단적으로 거부하는 혁명적 선언이다. “성지는 없다!” 모든 종교는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여기 종교의 배타성과 맹목성이 있다. 그런데 불교는 스스로를 절대화하기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위대해지기를 거부함으로써, 불교는 진정 누구보다 높은 위대한 종교가 되었다. “수보리아, 내가 말하는 성지는 성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한

다.” 이 역설의 논제는 <금강경> 전체를 통해 거듭 거듭 반복된다. 그만큼 중요하다.  
거듭 말하노니, “여래는 없다”  
<금강경>에서 끊임이 반복되는 이 변주를 한 자리에 놓고 보기로 한다.  
1) 제 13장 여부수지분(如法受持分): “... 수보리아! 뜻에 어찌뇨. 어부 32상(相)으로 여래를 보리 못 하리” “아닙니다. 세존하! 32상으로 여래를 시러 뵈지 못 하시오리니, 어찌어뇨? 여래 일르신 32상이 곧 이 상 아니라. 이 이름이 32상이니이다...”  
...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 見如來不也. 世尊. 不可以三十二相, 得見如來. 何以故. 如來說, 三十二相, 即是非相, 是名三十二相.  
2) 제 20장 이색이상분(離色離相分): “수보리아! 뜻에 어찌뇨? 부처를 어부 구족색신(具足色身)으로 보라 못 보라.” “아닙니다. 세존하! 여래를 구족색신으로 보시지 못 하리니. 어찌어뇨? 여래 일르신 구족색

신이 곧 구족색신 아니라, 이 이름이 구족색신이시니이다.” “수보리아! 뜻에 어찌뇨? 여래를 어부 제상(諸相) 가집으로 보라, 못 보라?” “아닙니다. 세존하! 여래를 구족 제상으로 보시지 못 하리니. 어찌어뇨? 여래가 일르신 제상구족이 곧 구족이 아니라, 이 이름이 제상구족이시니이다.”  
須菩提, 於意云何. 佛可以具足色身見不也. 世尊. 如來不應以具足色身見. 何以故. 如來說, 具足色身, 即非具足色身. 是名具足色身.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可以具足

성왕이 곧 이 여래이로다.” 수보리가 부처께 사뢰되, “세존하! 내 부처 일르신 뜻 알기름, 32상으로 여래를 뵈옵지 못하리로스이다.” 그때 세존이 계를 일르시되, “만일 색(色)으로 나를 보며, 소리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邪)한 도를 행하는지라, 여래를 능히 보지 못하리라.”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 觀如來不. 須菩提言, 如是如是. 以三十二相觀如來. 佛言, 須菩提, 若以三十二相觀如來者, 轉輪聖王, 則時如來. 須菩提白佛言, 世尊,

須菩提, 若有人言, 如來, 若來, 若去, 若坐, 若臥, 是人不解我所說義. 何以故. 如來者, 無所從來, 亦無所去. 故名如來.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제 13장의 ‘32상’, 제 17장의 ‘인신장대’, 제 20장의 ‘구족색신’은 다 같이 위대한 인물의 신체적 특징을 가리킨다. 붓다는 이들 표징으로 여래를 보려하지 말라고 당부해 마지 않는다.  
나아가, 제 26장에서 붓다는 ‘형상과 음성으로 여래를 찾는 사람’은 샅된 이단이라고까지 경고한다. 제 29장에서는 이 모든 사태를 종합해서 말한다. “여래는 오지도 않아요, 또한 가지도 않아요!” 그동안 여래를 찾아 떠돌고 헤치고 숲을 헤맸던 사람들은 뽕뽕 떼 지고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이제 어찌할까나. “붓다는 없다!”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 있는가. 경전에 있을까 하고 기웃거리니, 당장 “붓다는 설법한 적이 없다”는 꾸중이 돌아온다.  
제 21장 비설소설분(非說說分). 이 이야기를 선의 장치가 달라도 그대로 따라 했다. “확연무성(廓然無聖!)”  
붓다도 없고 성스러운도 없다. 모든 발판과 의지처를 빼앗기고 그럼에도 남은 자리가 있을까. 그곳은 바로, ‘내 마음’이다.  
내가 곧 붓다이고, 내 마음이 곧 금강경이다! 아니 그렇지 않고, 나는 붓다가 아니고, 내 마음은 금강경이 아니다!  
대체, 누가 이 말을 믿겠는가. 경전 불교도들 중 누가 ‘여래가 없다’는 말을 수긍하겠는가. 그 충격과 의혹이 다음 6장 정신희유분(正信希有分)에서 제기된다. “세존하! 자못 증생이 이같은 말씀 장구(章句) 들 잡고, 실(實)한 신(信)을 낼 이 있으리이까, 못 하리이까?” 世尊, 頗有衆生, 得聞如是說章句, 生實信不.  
■한국학중앙연구원

## 여래는 오지 않는다



諸相見不也. 世尊. 如來不應以具足諸相見. 何以故. 如來說諸相具足, 即非具足. 是名諸相具足.  
3) 제 26장 법신비상분(法身非相分): “수보리아! 뜻에 어찌뇨? 어부 32상으로 여래를 보라 못 보라?” “수보리가 사뢰되, “그리, 그러합니다! 32상으로 여래를 뵈오리이다.” 부처 가라사대, “(그렇지 않다.) 수보리아! 만일 32상으로 여래를 볼진대, 전로

如我解佛所說義, 不應以三十二相觀如來. 爾時世尊而說偈言,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4) 제 29장 위의적정분(威儀寂靜分): “수보리아! 뜻에 어찌뇨? 부처를 어부 구족색신(具足色身)으로 보라 못 보라.” “아닙니다. 세존하! 여래를 구족색신으로 보시지 못 하리니. 어찌어뇨? 여래 일르신 구족색